

9) 9월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한다. 이는 양수가 둘 겹쳐 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며, 특히 3의 3배수가 9이기 때문에 수리학상 완전수라 하여 중히 여긴다. 오늘날 중양절을 명절시하지 않고 다만 길일이라고만 간주하고 있다. 삼진날 날아온 제비가 이날 다시 강남으로 떠난다고 한다. 옛날에는 노란 국화잎으로 술을 담그고 떡을 빻어 먹었다 하며 황국은 약이 된다고 하여, 고려가요 '동동'에도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黃花)"라 하고 있다. 또한 옛날에는 중양절을 맞아 시인, 묵객들이 단풍놀이로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